

#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웃 도울 수 있어 행복”

‘직장인 밴드’ 수익금 기부하는 손해사정사 찬관범씨

### 라이브클럽서 6년째 정기 공연 수익금 모두 장애인 단체 기부

지난해 12월의 어느 밤,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라이브 클럽에는 기존 20대 뮤지션들이 아닌 중년 직장인들이 무대에 올랐다.

찬관범(39·사진)씨 등 5명이 모인 ‘직장인 밴드’는 6년째 정기적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공연 관람료는 단 1만원.

공연 수익금은 모두 장애인 복지단체에 기부되는 터라 좋은 취지에 공감한 관객들로 객석은 만원이었다. 이번 공연에는 역대 최대 관객 50여 명 몰려 무대를 함께 즐겼다.

찬씨는 직장인 밴드에서 ‘드림 치는 손해사정사’로 통한다.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고 있지만 드림 연주는 함께 해야 재밌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연습하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공연을 해보자는 말이 나왔어요. 한 명당 만원씩만 받다 보니 공연료를 내는 사람도 부담 없고 수익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저희도 행복감을 느끼게 됐죠.”

쾌활한 그의 성격과는 다르게 찬씨는 수천 장 서류에



파묻혀 사는 날이 허다하다.

손해사정사 14년 경력의 찬씨가 다룬 분쟁조정은 1000건이 넘는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알만한’ 사건·사고도 다수 맡았다는 것이 찬씨 설명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은 전국 2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제도가 안착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

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건·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단서 한 장만으로 어떻게 보험금과 과실비율을 낼 수 있겠어요.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고객 대부분은 보험사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분들입니다.”

통상 벌어지는 교통사고라 해도 빠르면 일주일, 길면 1년 넘게 걸린다. 장애 평가를 내려면 최소 6개월 걸리고 정식 장애 판정까지는 2년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사건·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사실 관계를 꼼꼼히 따진다.

상대적으로 생소한 손해사정 업계에서 자리를 잡아온 그는 노력파로 통한다. 검정고사로 학업을 이어나간 찬씨는 ‘제3보험면책사유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금융보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라디오에 출연하며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사례들을 소개하며 손해배상을 받는 법과 사고 처리요령을 전하고 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설계사의 차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해사정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코로나 극복 ‘덕분에 챌린지’ 동참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 시체육회 임직원 및 지도자 60여 명은 20일 감사와 존경을 상징하는 수어동작인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

료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용규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이어 많은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학협동연구원과 업무협약



광주과학기술진흥원(원장안기석·앞줄 가운데)은 20일 한국산학협동연구원(원장 차용훈)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과학 기술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관련 교육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사업, 산학연 협동관련 공동연구 수행 및 지원 등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양 기관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은 현장중심 연구, 기업경영 활성화, 기술개발 촉진 등 산학

협동을 통한 기업 및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연구조사, 교육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안기석 원장은 “올해 7월 인공지능사관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나갈 우리 지역의 산·학·연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 과학 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정길주 제이앤제이우드 대표, 2000만원 상당 아동용품 지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정길주(주제이앤제이우드 대표)가 지난 19일 광주아동복지협회를 방문해 신학기 입학하는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2000만원 상당 아동용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91호 회원이다.

정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전달되는 신학기용품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 이효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촉

전남대 이효원 건축학부 교수가 지난 19일 출범한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 18일까지 2년이다.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 등 모두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20주년 기획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끈대인턴(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아성여정	00 영혼수선공(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토크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테레투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45 아기상어 울리 두루두루			
3	00 출동! 유추구조대 30 영상앨범 산(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3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00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스페셜	00 또봇 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30 차츰우울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정글의 법칙(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전국 TOP 10 가요쇼(재)
8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이십세기 첫-트송	55 끈대인턴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영혼수선공	05 시리즈M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스포터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살림하는 남자들(재)	05 100분 토론	40 더 킹 : 영원의 군주 스페셜 혹시 당신은 대한제국 사람?
12	0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끈대인턴(재)	50 나이트라인

EBS1

07: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2:10 경이로운 지구	17:45 허풍선이 음악쇼
07:15 애코와 친구들	12:30 EBS 마스터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00 명의	19:00 말발량이 뽀뽀
07:45 개구쟁이 스머프	13:50 EBS 스페이스 공감	19:30 최고다! 후기심딱지
08:00 당동맹 유치원	14:40 아기 동물 귀여워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해오와 해오	20:00 극한직업
08:45 워터지 뮤직박스	15:1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레인보우 루비	15:25 애코와 친구들(재)	-세계의 지붕, 하늘을 달리다
09:15 또깨비 가족	15:55 또깨비 가족(재)	-천국보다 낫선, 북극카서스
09:30 몰랑	16:10 레인보우 루비(재)	21:30 한국기행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25 워터지 뮤직박스(재)	-절반 한 그릇 4부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맹 유치원(재)	연화사의 봄 바다 한 그릇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다큐 잇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띠띠뽀 띠띠뽀(재)	22:40 다문화 고부 열전
12:00 EBS 정오뉴스	17:35 몰랑(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1일(음 4월 29일 甲子) ☎ 010-9790-8237

<p>36년생 관계의 소중함을 절실히 통감하게 되는 하루이다. 48년생 점점 활기를 띠면서 운로가 왕성해진다. 60년생 구색을 다 맞추려다 보면 실기하고야 말 것이다. 72년생 성공의 문턱에 와 있으니 맞이할 준비를 하라. 84년생 하자가 보인다. 96년생 힘써 왔다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04, 95</p>	<p>42년생 희망의 노래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다. 54년생 확인과 검토는 오류를 방지할 것이다. 66년생 기본적인 것과 중요한 것을 확연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 78년생 절실한 사황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다. 90년생 양자택일해야 할 갈림에서 필히 갈등하게 되리라. 02년생 과정에 공을 들여야 야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5, 56</p>
<p>37년생 놀라는 일이 생길 수이다. 49년생 흑과 백만을 구분하려 하지 말고 회색도 있음을 분명히 알라. 61년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맞다. 73년생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인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 85년생 징조가 보이거든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 97년생 바로 그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70</p>	<p>31년생 한과가 도시라고 있다. 43년생 해결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계속 진행하라. 55년생 실수를 두려워하지는 대응력이 약화 되리라. 67년생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매우 희귀하니 소중히 여겨야겠다. 91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환의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61</p>
<p>38년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이 나올 것이다. 50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속을 챙겨야 할 때이다. 62년생 결과로 인한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74년생 사려 깊어 처리해야겠다. 86년생 과욕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리라. 98년생 빨리 체념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7, 52</p>	<p>32년생 한 가지 일에 전력투구해야만 성공하게 된다. 44년생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56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지장이 없고 마음 또한 편안하리라. 68년생 소울 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80년생 매그립지 못하니 탈이 나지 않게 하라. 92년생 금권에 휘둘리게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21, 77</p>
<p>39년생 지속 가능한 것에 주력함이 무방하다. 51년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때 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63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 지리라. 75년생 평판을 의식하다보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87년생 갈림길에 서게 되리라. 99년생 당대자에서 영향을 미칠만한 제안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34, 66</p>	<p>33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매듭지어진다. 45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게 된다. 57년생 숙તા한다는 오류를 남길 수밖에 없다. 69년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리라. 81년생 막힘이 많다. 93년생 얼음 녹듯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6, 60</p>
<p>40년생 멀리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비춰오고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해야 할 때다. 52년생 원점으로 회귀하는 형세라고 볼 수 있다. 64년생 다시 없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76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보인다. 88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 00년생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자. 행운의 숫자 : 22, 99</p>	<p>34년생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46년생 감미로운 기쁨이 있겠다. 58년생 보편타당해야만 실득력을 얻게 된다. 70년생 적절하게 지속 된다면 큰 성과를 거두리라. 82년생 약간의 신경 쓰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94년생 길운이므로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7, 63</p>
<p>41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리라. 53년생 상태는 다 알면서도 내용을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5년생 발언하기 보다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자. 77년생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89년생 전체적인 판국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01년생 변화무쌍한 상황이니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5, 62</p>	<p>35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리라. 47년생 오해를 받고 있을 소지가 크니 매사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59년생 주된 일에 매진하다보면 부수적인 사항은 자연히 해결된다. 71년생 공을 들여라. 83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피는 안목이 절실하다. 95년생 꺼려할 수 있으니 오야 메도 꺼져지 않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03, 88</p>